‘교실 털이’ 좀도둑 날뛴다

광주 초·중학교 방과후 금품 도난 피해 잇따라

학교 측 외부 알려질까 신고 않고 ‘쉬쉬’

광주지역 초·중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들이 회의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빈 교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범인은 오후 3~4시 사이에 잠겨있는 교실문을 뜯고, 캐비닛을 부수는 등 절도행각을 벌이고 있다. 야간에는 무인방범시스템이 작동하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상 외부인을 막을만한 방범장치가 없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여교사의 증가로 범인을 발견하고도, 눈 앞에서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감시인력 확충 등 학교 보안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들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4시 사이에 광주 A초교 1, 2, 3학년 교실 5곳에 도둑이 침입, 교실 문과 캐비닛 등을 부수고 35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이 학교의 한 여교사는 30대로 보이는 키 170㎝ 안팎의 마스크를 쓴 범인을 발견했지만, 다른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범인은 사라지고 말았다.

광주 B초등학교도 최근 방과 후 시간대에 교실 여러 곳에서 교사들의 지갑안에 있던 현금 등이 분실됐지만,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여러 초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좋지 못한 사건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학교의 특성 때문에 도둑 맞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와 하교 시간이 비슷한 중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 C중학교는 이번 달 초 교내에서 오후 3~4시 사이에 외부인의 소행으로 보이는 분실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 모 교사는 “교실 여러 곳이 털렸다. 하지만 피해가 미미해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초·중학교에서 분실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시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인력감축 등을 이유로 학교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이 사라진 데다, 학교 경관 조성의 명목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광주 초·중·고 294개교 중 190곳에 학교당 5대 꼴인 949대의 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학교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校舍) 뒷쪽에 배치돼 외부인을 감시하기엔 한계가 있다.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대부분이 여교사들인데, 도둑을 어떻게 잡겠느냐”면서 “물건만 가지고 가면 그나마 다행이다. 학생이나 교사들이 다치는 등 다른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불안해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전체의 80.8%(3천893명)에 이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살인 부른 의처증

광주 금호동 40대女 살해혐의 前 구의원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21일 전 남편의 모친상 조문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전 광주 구의원 K(52)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45분께 광주시 금호동 S아파트에 사는 동거녀 이모(여·45)씨의 집 안방에서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이씨를 만나 사귀어온 K씨는 이날 이씨가 전 남편의 모친상 조문을 다녀온 것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지인들은 경찰에서 “(이씨가) 남편 앞에선 전화도 제대로 받지 못할 만큼 의처증에 시달려 왔었다”고 진술했다. 설비업을 하는 K씨는 또 채무문제로 동거녀와 말다툼을 자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K씨의 목·양팔·가슴 등에 난 상처와 이씨의 손톱에 낀 DNA 분석을 의뢰, 두 DNA가 일치한 점을 확인하고 이씨를 붙잡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도 K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금남로 노제 화물연대 광주지부 고(故) 박종태 지회장의 노제가 지난 2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유족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과 추모 글귀가 적힌 만장 사이로 운구행렬이 지나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 구묘역에 박종태씨 안장 강행

대한통운 택배기사 집단 계약해지에 맞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38) 지회장의 영결식과 노제가 지난 20일 대전과 광주 금남로에서 치러졌다. 박씨의 유해는 (재)광주무등묘원측의 반대〈광주일보 17일자 6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5·18 구 묘역에 안장됐다.

박 지회장이 농성투쟁을 벌였던 대전시 대덕구 대한통운 물류센터 앞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광주로 내려온 운구행렬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사무실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앞을 거쳐 이날 오후 5시30분께 금남로에 도착했다.

‘고(故) 박종태 열사 장례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노제에는 강승철 광주본부장을 비롯한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상임고문, 화물연대 조성규 광주지부장, 유족, 시민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빗속에 시작된 노제는 조사, 추모 영상 상영, 진혼무, 헌화 등의 순으로 1시간 20여분동안 진행됐다.

박 지회장의 시신은 노제가 끝난 뒤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5·18 구 묘역) 묘역으로 옮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묘지를 관리하는 (재)광주무등묘원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장이 진행됐다.

(재)광주무등묘원 관계자는 “매장 불가 입장을 미리 전달했지만, 소나무를 뽑아내고 시신 매장을 강행했다”며 “조만간 유족 측에 이장해갈 것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진압경찰 폭행 시위자 “방어권 넘었다” 유죄

대법, 무죄선고 파기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3)씨와 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경집회에 대한 원천봉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김씨 등이 경찰관들을 때리고 진압장비를 빼앗은 것은 소극적 방어를 넘어 공격의사를 포함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7년 11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PVC 파이프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위법한 상경 제지에 대항하다가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경찰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음주 뺑소니·뇌물 前 경찰관 실형

광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21일 뺑소니 운전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변모(3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기관인 경찰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광주 북부경찰서에 재직 중이던 2007년 1월께 음주 뺑소니 피의자 고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사고 발생 7개월이 지난 뒤에야 사건 접수를 하고 경찰의 범죄관리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사건을 고의로 방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섬진강 낚시 40대 변사

21일 오후 4시30분께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섬진강에서 류모(49)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수색하던 119 구조대가 발견했다. 경찰은 일행과 낚시를 하기 위해 강을 찾은 류씨가 수영미숙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경찰서에서 도박자금 등친 공갈범

쌍나팔

○…도박혐의로 함께 붙잡힌 60대 노인에게 겁을 줘 지구대 밖으로 돈을 던지게 한 뒤 이를 가로챈 ‘못된’ 50대가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지구대에서 60대 여성을 꾀어 양말 속에 감춰 둔 돈다발을 담 밖으로 던지게 한 뒤 지인을 통해 가로챈 김모(59)씨를 공갈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밤 11시20분께 금남지구대 뒤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함께 체포된 김모(여·69)씨에게 ‘어차피 압수될 돈’이라며 접근, 현금 70만원을 담 밖으로 던지게 한 뒤 한 달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은 혐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지구대에서 슬슬 겁을 줬는데, 의외로 김씨가 쉽게 걸려들었다”며 뒤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